

# 朝鮮後期 騎兵 馬上武藝의 戰術的 特性

- 馬上鞭棍을 中心으로 -

崔 炯 國\*

1. 머리말
2. 馬上鞭棍의 導入背景과 定着
3. 馬上鞭棍의 자세와 訓練方法
4. 馬上鞭棍을 통해 본 馬上武藝의 戰術的 特性
5. 맺음말

## 1. 머리말

壬辰倭亂 이전까지 朝鮮軍 戰術의 핵심은 騎兵이었다.<sup>1)</sup> 이는 朝鮮을 건국한 太祖 李成桂의 출신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성계는 북방의 여진족을 비롯한 여러 이민족과의 전투를 통해 많은 戰果를 얻었으며 이 과정 속에서 얻은 군사세력을 바탕으로 朝鮮을 건국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조

\* 영집 궁시박물관 학예사

1) 심승구, 『朝鮮時代의 武藝史 研究-毛毯를 중심으로-』, 『軍史』 38호, 1999, 國防軍史研究所, 126쪽 참조.

선을 건국한 후에도 북방 이민족의 위협은 끊이지 않아 조선초기의 主敵은 당연히 이들이었고 이에 대한 방어 및 공격을 중심으로 조선군의 편제가 이뤄졌다.<sup>2)</sup> 이러한 이유로 조선초기 핵심 병서인 『陣法』에는 騎兵을 중심으로 한 전략·전술들이 주를 이뤘으며, 步兵은 騎兵과 동일한 비중으로 편성하였지만 그 실질적 공격 및 방어의 핵심은 騎兵이었다.<sup>3)</sup> 심지어 남쪽의 왜구를 방어하는 데에도 騎兵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화포를 이용한 방포법과 더불어 기병은 조선의 군사 공격 및 방어체제에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壬辰倭亂이라는 사상 초유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조선초기 騎兵 위주의 전법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으며, 이후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단병접전과 화기술을 포함한 砲手·射手·殺手를 비롯한 三手兵과 戰車 등 다양한 형태의 전법 변화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조선초기 騎射와 騎槍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騎兵의 馬上武藝 또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특히 임진왜란 과정 중 발생한 碧蹄館 戰鬪는 급기야 騎兵 無用論까지 일게 하였지만,<sup>4)</sup> 이후 稷山 戰鬪를 비롯한 몇몇 전투에서 기병의 유용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기병은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더욱이 병자호란 당시 淸 騎兵의 빠른 속도전에 밀려 南漢山城에 포위된 仁祖가 三田渡의 굴욕을 겪으면서 조선군 기병의 역할은 다시 한 번 역사의 전면에 부각된다.

이 과정에서 조선후기 騎兵의 필수 무예로 인정된 馬上鞭棍<sup>5)</sup>은 이전의

2) 河且大, 『朝鮮初期 軍事政策과 兵法書의 發展』, 『軍史』 19호,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9, 101쪽 참조.

3) 盧永九, 『朝鮮後期 兵書와 戰法의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7쪽 참조.

4) 『宣祖實錄』卷65, 宣祖 28年 7月 己卯. “成龍曰 威繼光陣法 大概間花疊而動靜相隨 專爲防倭而設也 防倭則步兵勝於騎兵 前日碧蹄之戰 遼兵騎兵 故倭人以步兵急趨 遼兵見敗.”

5) 馬上武藝의 일종인 馬上鞭棍은 달리는 말 위에서 鞭棍을 사용하는 무예를 말한다. 鞭棍은 일종의 도리깨형태의 무기이며, 긴 母鞭과 짧은 子鞭으로 구성되어 모편을 잡고 자편을 휘둘러 적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타격무기 및 무예이다. 보통 마상무예에서는 그 무기를 지칭하는 것이 무예를 설명하는 것으로 함께 사용된다.

騎射나 騎槍과는 다른 무예로 신속하게 적을 공격할 수 있는 打擊武器로 인정받았다. 구체적으로 기병 근접전에서는 馬上還刀나 騎槍 그리고 馬上月刀 등이 함께 사용되었으나 이들의 경우는 적을 찌르거나 벤 후 회수하는 시간이 있어 조총이 전장에서 상용화되는 시점에서 빠른 돌격전에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馬上鞭棍은 그 핵심 특성이 도리끼와 같은 회전식 타격무기이기 때문에 회수력 부분에서 칼이나 창보다 빠르게 적을 공격할 수 있었다.<sup>6)</sup> 또한 母鞭과 子鞭을 합칠 경우 일반 장병기와 비슷한 길이로 사용할 수 있으며, 鞭棍의 子鞭은 평상시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휴대가 간편하여 조선후기 騎兵들에게는 필수 지참무기로 보급되었다.<sup>7)</sup>

조선후기 騎兵과 馬上武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文獻中心의 연구가 주를 이뤘다.<sup>8)</sup> 이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騎兵이 구사할 수 있는 전략

- 6) 기병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무기인 還刀나 騎槍의 경우는 적을 찌른 후 다시 뽑아야 재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화약무기의 재장전 속도를 감안하여 볼 때 馬上鞭棍의 타격 방식은 적의 표면을 공격하는 무기이기에 회수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還刀나 槍의 경우는 甲冑를 입은 적에게 타격을 입히기 어려우나 馬上鞭棍은 갑주착용의 유무와 상관없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 7) 현재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武器에 대한 제원 중 길이 문제에 대하여 약간의 이견이 있다. 대표적으로 周尺과 營造尺으로 구분되는데, 營造尺의 경우에는 주로 兵器 및 船舶의 건조, 건축, 특히 성곽의 축조 등에서 많이 사용하였지만 환산단위에서 약 31cm에 해당돼 무예도보통지상의 무기제원으로 보기에는 한계점이 많다. 따라서 필자의 경우는 馬上鞭棍의 길이를 周尺으로 환산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무기의 도량형에 대한 부분은 추후 논문에서 다룰 예정이다. 조선 후기 병서인 『武藝圖譜通志』에 실린 馬上鞭棍의 제원을 살펴보면, ‘鞭長六尺五寸 子鞭長一尺六寸五分’으로 周尺으로 환산할 경우 편은 약 130cm이고 차편은 약 35cm이다. 일반적으로馬上에서 사용했던 자루가 긴 무기인 騎槍이나 月刀의 경우 전장 길이가 길어馬上에서 휴대하기 불편하였다. 그래서 비록 騎槍이나 月刀를馬上에서 사용할지라도 馬上鞭棍은 함께 안장에 휴대하도록 하였다.
- 8) 현재까지 조선시대 馬上武藝와 관련한 연구 중 대표적인 논문은 심승구, 『朝鮮時代の 武藝史 研究-毛毬를 중심으로-』, 『軍史』 38호, 1999이며 이 논문에서는 馬上武藝 중 騎射 훈련과 관련한 毛毬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무예사를 다뤘다. 또한 『조선시대 무과에 나타난 궁술과 그 특성』, 『학예지』 10집, 육사박물관, 2000에서는 무과시험에서 활용되었던 步射, 騎射를 살펴본다. 조선시대 무예사 연구에 대한 많은 연구를 남겼다. 특히 노영구

과 전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으며, 특히 馬上武藝의 경우는 고난도의 무예실력을 요하는 것이기에 문헌적인 연구로 귀착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武藝史 또한 歷史學의 지류이므로 文獻研究를 통해 일정한 흐름을 읽을 수 있지만, 이와 더불어 신체의 움직임과 실제 군사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부분이 함께 연구된다면 기존의 문헌연구 위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實技史의 입장을 추가하여 馬上鞭棍을 중심으로 朝鮮後期 馬上武藝의 특성을 짚어 보고자 한다. 특히 조선후기 平壤監營에서 발간한 『射法秘傳攻瑕』<sup>9)</sup>의 馬射法의 훈련법을 구분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馬上鞭棍의 훈련법을 유추하여 보다 실기적인 훈련법까지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武藝史 연구의 연장선에서 文獻研究 뿐만 아니라,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實技史의 관점에서 조선후기 馬上武藝의 핵심인 馬上鞭棍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전투 현장의 변화와 함께 마상편곤의 도입배경과 實技 훈련방법의 자세까지 면밀히 분석해 보고, 이후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후기 馬上武藝의 戰術的 특징까지 확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조선후기 개인무예 훈련서인 『武藝圖譜通志』의 馬上鞭棍을 중심으로 그 실제적인 자세 비교와 騎兵들의 무장상태를 통해 馬上鞭棍의 특징과 전술적 가치를 실제 자세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전장의 변화와 맞물려 기병들의 개인 전술이 어떠한 변

의 경우는 「무예도보통지와 마상무예」, 『정조대의 예술과 과학』, 문헌과 해석사, 2000에서 조선후기 개인무예 병서인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마상무예를 전반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임동권 외, 『한국의 마상무예』, 『마문화연구총서』 II,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1997에서는 『武藝圖譜通志』에 실린 마상무예 전반을 다뤘다. 필자 또한 騎射의 실기사적인 측면을 주목하여 「조선시대 騎射 시험방식의 변화와 그 실제」, 『中央史論』 24, 韓國中央史學會, 2006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騎兵에 대한 연구로는 노영구, 「18세기 騎兵 강화와 지방 武士層의 동향」, 『한국사학보』 13, 2002 등이 있다.

9) 『射法秘傳攻瑕』의 경우는 활과 관련된 조선후기 유일한 사법 훈련서이다. 특히 이 중 馬射法의 경우는 馬上武藝 실기사를 연구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 사료에 대한 설명은 후술한다.

화를 겪게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2. 馬上鞭棍의 導入背景과 定着

조선후기 壬辰倭亂을 거치면서 조선 騎兵들이 수련했던 여러 가지 무예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이 馬上鞭棍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騎兵들이 사용한 鞭棍은 壬辰倭亂을 거치면서 明의 원군들이 사용했던 무기를 유심히 관찰한 후 조선에 도입한 무기였다. 당시 明의 원군이 새롭게 들여온 무기로는 鎗銃과 狼筈을 비롯한 短兵接戰을 위한 武器가 주를 이뤘다. 특히 鞭棍의 경우는 騎兵과 步兵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효과적인 무기로 인식되었다. 원래 鞭棍과 같이 공격하는 부분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무기를 중국에서는 多節棍이라고 하는데 그 시작은 春秋戰國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春秋時代의 경서 중 『墨子』에는 연정이라는 무기가 등장한다. 이 무기는 성을 지킬 때, 성벽을 향해 공격해오는 적을 두 자루의 봉을 연결하여 타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었다.<sup>10)</sup> 한편 鞭棍에 대한 기록 중 가장 의미 있는 첫 번째 기록은 壬辰倭亂 이후 최고의 軍營으로 부각된 訓練都監의 군사 중 鞭棍軍 3백 44인을 신설했다는 것이다.<sup>11)</sup> 하지만 정확히 이들이 지상에서 鞭棍을 사용하는 步鞭棍인지 말을 타고 鞭棍을 사용하는 馬上鞭棍인지는 확실치는 않다. 다만 丙子胡亂 때에는 당시 禁軍이 高陽에서 淸의 騎兵<sup>12)</sup>을 만나 일전을 치렀다가 이 鞭棍의 위력으로 인해 괴멸되다시피 하였다는 기록을 볼

10) Koichi Shinoda, 『武器と防具 中國編(BUKI-TO-BOUGU)』, Dulmyouk Publishing CO, 2001.

11) 『仁祖實錄』卷17, 仁祖 5年 9月 庚寅.

12) 당시 도검을 제외한 淸 騎兵의 무기로는 戟, 鞭, 斧 등 다양한 단병무기를 사용하였다. 위의 내용을 볼 때 선발대의 경우 鞭棍으로 무장하여 돌격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周緯, 『中國兵器史稿』, 百花文藝出版社, 2006, 185쪽 참조.

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馬上鞭棍이 보급은 되었지만 朝鮮騎兵들의 馬上鞭棍 실력이 청 기병에 비해 부족했으리라 판단된다.<sup>13)</sup> 특히 星湖 李瀼의 경우는 “말 탄 군사(騎兵)로서 쓸 것은 鐵連枷<sup>14)</sup> 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며 馬上鞭棍이 騎兵에게 가장 적합한 무기라 평가하기도 하였다.<sup>15)</sup> 이어서 이 무기가 농사짓는 집에서 곡식을 터는 기구와 비슷하며, 宋나라 장수인 狄靑이 崑崙 싸움에서 사용했다고 언급하며 그 연원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렇듯 兩亂을 거치면서 馬上鞭棍은 말을 달리면서 鞭棍을 휘두르는 무예로 그 독특한 무기구조로 인하여 빠른 돌격력을 우선시해야만 했던 기병들에게 효과적인 무예로 인식된다. 물론 이전에도 鐵槌나 鐵推를 비롯한 타격식 무기가 있었지만, 그 길이의 한계로 인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sup>16)</sup>

馬上鞭棍의 실질적인 도입배경은 壬辰倭亂의 과정과 이후 전란극복 과정에서 조선군 전술의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임란 초 조선의 주력 방어 무기는 활과 화포를 주축으로 하는 보병용 장병기예와 騎射와 騎槍을 중심으로 운용되던 기병기예였다. 물론 조선초기의 기본 진법이었던 오위진법에서 사용되었던 防牌, 槍手, 長劍手 등 몇 가지 단병접전용 기예가 있었으나 조선 개국 후 임란 전까지 큰 전란 없이 지내오면서 조금씩 사장되어 갔다.<sup>17)</sup> 특히 조선전기의 경우 주적의 개념이 여진족을 비롯한 북방의 이민

13) 『武藝圖譜通志』, 馬上鞭棍(案).

14) 여기서 말하는 ‘鐵連枷’는 곧 馬上鞭棍을 의미한다.

15) 『星湖僿說』 제6권 萬物門 克敵弓, “騎之用莫過 鐵連枷 比卽 田家打穀之器而稍別其制 宋狄靑用之於 崑崙之戰者也.”

16) 『高麗史』世家 卷37 忠定王.

17) 『武藝圖譜通志』, 『御製武藝圖譜通志序』, “오직 弓矢 한 가지에만 그쳤을 뿐 槍劍 등 다른 기예(무예)는 들어보지 못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조선 전기에는 활을 제외한 나머지 단병무예의 사용법은 군사훈련 현장에서 조금씩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宣祖實錄』卷53, 宣祖27年 7月 丁亥 條의 기사를 보면 宣祖의 경우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劍術이 전승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조선전기의 검술을 비롯한 단병무예는 사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족이었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병보다는 기병부분에 더 많은 전략적 우위를 두고 있었다. 조선전기 여진족의 군사형태 및 기본 전략은 『兵將說』에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원래 女眞(軍)에는 步卒(보병)이 없이 오직 騎兵 1천여 명이 있다. 이들은 작은 木牌를 조각하여 사람과 말에 붙이고 50명을 一隊로 불렀다. 이들 중 앞의 20명은 重甲에 의지하고 矛戈(창)을 무기로 삼으며, 뒤의 30명은 顛甲을 입고 궁시로 무장하였다. (1대의 병력은) 적과 만날 때마다 반드시 두 명이 함께 말을 타고 달려 적진의 허실을 살피고, 이후 사면에서 동시에 말을 타고 공격하였다.”<sup>18)</sup>

이처럼 女眞軍은 모두 기병으로 편성되어 선봉에는 창을 들고 돌격작전을 감행하고 후발대는 활로 무장하여 원거리에서 빠르게 적을 제압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군 또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부대의 상당부분을 騎兵으로 채워 북방의 적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나서 이러한 군사 체제 및 전략은 그 허점으로 인하여 초기 패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당시 일본군의 핵심 전술은 아직 조선에 보급되지 않았던 조총부대를 선두에 세우고 선제사격을 가한 뒤, 이후 창과 왜검을 든 殺手들이 달려 들어가 단병접전을 펼치는 것이었다. 일본군이 사용한 임란 당시 전술을 降倭兵에게 구체적으로 물었던 柳成龍은 『西厓集』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왜군은 군대를 나눌 때마다 반드시 다섯으로 만든다. 일진(一陣)이 적을 맞이하면 뒤에 이진(二陣)은 좌우의 날개를 벌려서 그들을 포위하며, 좌우 두 머리가 적을 대치하면 또 뒤의 두 진이 그 바깥으로 둘러 나와서 언제

18) 『兵將說』, 「諭將篇」. “初女直無步卒, 惟騎兵千餘, 刻小木牌, 係人馬, 爲號五十人爲一隊, 前二十人, 重甲持矛戈, 後三十人, 輕甲操弓矢, 每遇敵, 必二人躍馬而出, 觀陳之虛實, 四面結隊二馳擊.”

고 우리 군사로 하여금 그들의 포위망으로 몰아넣는다. …(중략)… (왜군은) 군사들을 셋으로 나누어 편성해서 三疊陣을 만들고 행렬을 이뤘는데 앞에 선 행렬은 旗幟를 가졌고, 가운데는 조총을 갖게 하고, 뒤의 행렬은 短兵을 가지게 한다. 적을 만나면 앞 행렬의 기치를 잡은 자들은 양쪽으로 나누어 벌려 포위한 형태를 만들고, 중앙 행렬의 조총을 가진 자들이 일시에 총을 발사하여 적진을 충돌하니 적군이 많이 조총에 상하여 적진이 요동한다. …(중략)… 뒤 열의 槍劍을 가진 자들이 뒤에서 추격하여 마음대로 그들(적 도망병)을 목 베어 죽인다.”<sup>19)</sup>

이러한 日本軍의 조총발사 후 단병접전을 펼치는 보병 위주의 전술은 조선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되었으며, 이후 원군의 입장으로 조선에 건너온 명나라의 초기 선봉부대였던 祖承訓의 기병 부대까지 이러한 전술에 휘말려 제대로 된 전투조차 치르지 못하고 본국으로 패퇴하고 말았다.<sup>20)</sup> 이런 短兵接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訓練都監의 砲手·射手·殺手로 확립된 삼수병체제였다. 이 중 砲手의 경우는 비교적 단시간 내에 양성될 수 있었고, 射手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弓矢를 다루는 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병종은 큰 무리 없이 채울 수 있었다. 그러나 殺手의 경우는 오랜 수련을 필요로 했기에 宣祖가 직접 나서 劍術을 전문적으로 연마하는 兒童隊를 만들거나, 降倭兵들의 劍法을 조선군에게 보급하게 된다.<sup>21)</sup> 이렇게 적극적인 短兵接戰의 전술 강화책과 더불어 신립의 彈

19) 『西厓集』 卷16, 雜著 「倭知用兵」.

20) 임진왜란 초전 일본의 단병접전에 대한 연구는 정해은 「임진왜란기 조선이 접한 단병기와 '무예제보'의 편찬」, 『군사』 51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에서 임란 당시 일본의 단병접전에 대항하기 위하여 명나라에서 입수한 『기효신서』의 여섯 가지 기예를 수록한 『무예제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접근을 하였다. 또한 필자의 「조선 후기 倭劍交戰 변화연구」, 『역사민속학』 25호, 역사민속학회, 2007에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1) 『宣祖實錄』 卷53, 宣祖 27年 7月 乙未. “傳曰 聞劍術不能爲之云 出身堂上以下 年少武士 抄出爲之 而後日親臨試才時 入格者重賞 不能者治罪矣 治罪事 言于訓練都監”; 『宣祖實錄』 卷53, 宣祖 27年 7月 乙巳. “倭既來投 不可不厚撫 外方可送者 則斯速下送 其中可留者 留置京中 除以軍職 或鑄劍銃 或教劍術 或煮焰硝 苟能盡得其妙 敵國之技 卽我之技也 莫謂倭

琴臺 전투를 비롯한 碧蹄館 전투의 기병전술 패배는 곧 騎兵 확대 대신 殺手와 砲手의 강화로 이어졌다. 물론 전투라는 것이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戰術 또한 절대적인 것이 없다. 구체적인 예로, 短兵接戰에 능했던 明의 南兵들이 오히려 일본군들에게 고립되었을 때, 연일 일본군에 패배하기만 하던 弓矢로 무장한 조선군의 구원을 받아 死地에서 구출된 것이나,<sup>22)</sup> 稷山戰鬪에서 조선의 騎兵들이 일본군들과 단병접전을 벌여 오히려 크게 이긴 적도 있었기에 조선정부의 騎兵과 步兵의 활용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결정적으로 임란 이후 17세기 초에 발생한 여진족의 재침입 사건<sup>23)</sup>을 시작으로 丁卯胡亂과 丙子胡亂 등을 거치면서 북방 이민족의 빠른 騎兵을 감당하기 위하여 조선군은 다시금 騎兵 강화 및 육성에 눈을 돌리게 된다. 특히 인조반정에서 공이 매우 컸던 李适이 공신책봉에서 2등급으로 분류되면서 불거진 李适의 亂때 騎兵의 위력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반란군의 선봉부대였던 7백 명의 騎兵부대는 빠른 기동력을 바탕으로 토벌군이 방어 작전을 펼치기도 전에 都城으로 진격하여 무혈입성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李适의 亂이 진압된 후 조선정부는 이에 대한 방어책을 위하여 騎兵에 대한 대대적인 증원과 戰馬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sup>24)</sup> 이러한 기병강화 정책과 발맞춰 騎兵들이 사용하는 무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 또한 싹트게 되었다. 李适의 亂에서 선봉을 맡았던 기병들이 사용했던 馬上鞭棍은 騎兵들뿐만이 아니라 위정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그 위력이 최고임을 자각하고 있었다. 특히 仁祖의 경우는 忠臣이라고 믿었던 이괄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당한 이후 군왕이 직접 鞭棍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해 完豐君 李曙는 “역적 李适의

賊 而厭其術慢於習 着實爲之 言于備邊司.”

22) 『宣祖實錄』卷45, 宣祖 26年 11月 壬午.

23) 『宣祖實錄』卷187, 宣祖 38年 5月 壬辰.

24) 盧永九, 『朝鮮後期 兵書와 戰法の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16쪽 참조.

馬軍 7백 인이 모두 鞭棍을 썼는데, 이 때문에 당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며 기병의 馬上鞭棍 훈련과 보급에 적극적이었다.<sup>25)</sup>

이러한 (步, 馬上)鞭棍에 대한 관심은 武科試驗 중 하나였던 觀武才의 종목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전기 觀武才의 시취 과목은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觀武才의 경우는 일반적인 무과시험이나 시취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간편하면서도 실용적인 경기방식의 무예들을 시험과목으로 채택하였고, 특히 기병들이 활용할 수 있는 馬上武藝인 騎槍, 二甲射, 射毛毬, 擊毬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기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시험으로 각광받았다. 또한 단순히 개인적인 무예실력을 평가하는 것 뿐 아니라 단체전적인 성격의 집단무예시험이었기에 군사훈련의 핵심인 陣法훈련의 연장으로도 볼 수 있어 騎兵陣法 훈련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sup>26)</sup>

<표 1> 조선전기 觀武才의 시취 과목<sup>27)</sup>

	步射	騎馬武藝			
	立射	騎射類(交戰)	騎槍類(交戰)	毛毬	擊毬
初試	小革 方革(貫革) 遠射	騎射 2次 二甲射(甲乙射) 三甲射	騎槍 二甲槍(甲乙槍) 三甲槍	射毛毬 (馳馬毛毬)	擊毬 (馳馬擊毬)
覆試	上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비고	100步 5矢 5巡	各 1隊 4人 단체전 左右 40명 예비 各 10명	各 1隊 4人	1次 3發	11人 各 1次

25) 『仁祖實錄』卷4, 仁祖 2年 3月 癸亥.

26) 심승구, 전계서, 2005, 138~139쪽 참조.

27) 심승구, 『조선전기의 觀武才 연구』, 『향토서울』 제65호, 2005, 134쪽 <표 3> 인용.

이러한 조선전기의 시취과목은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仁祖代에는 실전성을 겸비하기 위하여 관무재 과목에 鐵箭, 片箭, 騎射, 騎菟, 三甲射, 鞭棍手, 雙劍手, 劍手 등을 대폭 추가, 확대하였다.<sup>28)</sup> 이러한 변화 중 여기에 새로 추가된 鞭棍手 역시 무예의 실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된 것으로 馬上鞭棍을 위한 기본적인 기법이 步鞭棍에 있기 때문에 이를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sup>29)</sup> 이러한 馬上鞭棍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군영에서도 나타났는데, 인조 5년에는 訓練都監에 편곤만을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병과인 鞭棍軍을 만들고 3백 44인을 새롭게 뽑아 편성하기도 하였다.<sup>30)</sup> 또한 북벌의 상징이었던 御營廳의 精兵훈련에서도 偃月刀와 鐵椎, 鞭棍 등의 기예보급을 위해 훈련도감에서 武藝敎師들을 파견하여 무예를 직접 전수하기도 하였다.<sup>31)</sup> 이렇게 仁祖대에 鞭棍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훈련이 이뤄지자 심지어 日本에서도 조선에서 수련하는 鞭棍의 원조격인 淸의 鞭棍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기도 하였다.<sup>32)</sup>

이러한 騎兵의 특수 무기로 재인식되었던 鞭棍에 대한 관심은 肅宗代에 이르러 더욱 부각되었다. 조선은 북방세력의 변화기류를 감지하면서 기병부대 증설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게 되었다.<sup>33)</sup> 기병부대의 새로운 증설은 북

28) 『仁祖實錄』卷9, 仁祖 3年 4月 丁酉. 이후 顯宗代에는 단순히 편곤을 허공에 사용하기 보다는 실용적으로 쫓인형(芻人)을 공격하는 鞭芻로 발전하였다. 이는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쏘는 騎射와 비슷한 형태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騎射의 경우는 임란을 거치면서 실효성의 문제로 芻人에 직접 활을 쏘는 騎芻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조선시대 騎射의 변화에 대한 것은 필자의 「조선시대 騎射 시험방식의 변화와 그 실제」, 『中央史論』 24, 韓國中央史學會, 2006을 참조하기 바란다.

29) 仁祖代에는 (步)鞭棍과 馬上鞭棍에 대한 명칭상의 차이가 없었던 듯하다. 실례로 인조 6년 10월 丁酉條의 기사를 보면 시취과목에는 鞭棍·騎菟라 표기하고 장작 시험을 본 후 시상자에서는 '馬上鞭棍을 한 閑良 韓得吉은 禁軍 제수'라고 하여 馬上을 명확히 표기하고 있다. 아마도 이는 당시 마상무예의 경우 지상에서 충분히 수련을 한 후 이뤄지는 무예였기에 지상에서의 이름이 곧 마상에서의 이름으로도 사용되었으리라 추측된다.

30) 『仁祖實錄』卷17, 仁祖 5年 9月 庚寅.

31) 『承政院日記』19冊, 仁祖 5年 11月 辛卯.

32) 『仁祖實錄』卷40, 仁祖 18年 6月 丁巳.

방과 직접 맞닿아 있는 함경도에서 親騎衛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 海西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기병부대인 西海別驍衛가 창설되었다.<sup>34)</sup> 특히 親騎衛의 경우는 柳葉箭, 片箭, 騎箭, 鞭箭 등 네 가지를 시험 보아 뽑았는데 이 중 騎芻와 鞭芻는 기병의 가장 핵심무예인 원사무기와 근접돌격무기로 인정되어 중요한 시험과목으로 그 평가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sup>35)</sup> 또한 친기위로 뽑힌 군사들의 경우는 직접 兵曹에서 휴대할 弓矢, 環刀, 鞭棍 등 기본무기를 배급하여 최고의 무장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英祖代에 이르러 기병강화책은 임진왜란 때 단병접전 무예로 치중된 『紀效新書』 대신에 조선초기의 전법서인 騎兵운용을 강조한 『兵將圖說』을 재간행함과 맞물려 더욱 확대되어 나갔다. 英祖의 경우도 鞭棍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며 備邊司의 啓辭에 따라 松都 馬兵들을 위해 특별히 鞭棍 200개를 나눠 주기도 하였고,<sup>36)</sup> 같은 해 영호남에 盜賊이 들끓었을 때에도 馬兵과 함께 鞭棍을 따로 수송해서 보내 도적소탕에 만전을 기하기도 하였다.<sup>37)</sup> 그리고 水原府 馬軍을 위한 인원과 무기가 부족했을 때에도 가장 먼저 수급해야 할 무기가 鞭棍이라고 하며 기병을 위한 鞭棍의 보급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sup>38)</sup> 또한 禁軍들이 사용하는 鞭棍의 길이가 너무 짧아 효용성이 없다고 질책하거나,<sup>39)</sup> 임금의 거동 때나 習陣 때에만 鞭棍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賞試射 때에도 鞭棍을 시험하는 것에 동의하기도 하였다.<sup>40)</sup> 심지어 당시 왕세손이었던 훗날의 正祖와 함께

33) 『備邊司謄錄』60冊, 肅宗 36年 11월 9일.

34) 姜錫和, 『朝鮮後期 咸鏡道の 親騎衛』, 『韓國學報』 89호, 1997, 27~28쪽 참조.

35) 『備邊司謄錄』38冊, 肅宗 10年 8월 8일. 咸鏡道親騎衛抄擇節目別單.

36) 『備邊司謄錄』83冊, 英祖 4년 3월 29일.

37) 『備邊司謄錄』83冊, 英祖 4년 4월 5일.

38) 『備邊司謄錄』83冊, 英祖 4년 4월 27일.

39) 『英祖實錄』卷42, 英祖 12年 11月 癸巳.

40) 『英祖實錄』卷61, 英祖 21年 3月 癸未.

慕華館에 행하여 禁軍·訓局·禁衛營·御營廳의 騎士들을 시험 보았는데, 오직 馬上鞭棍 한 종목만 시험을 치러 기예에 능한 군사에게는 상을 주고,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군사는 해당 부대의 대장에게 죄를 묻는 등 馬上鞭棍을 騎士들의 무예 전반을 검증하는 기예로 삼기도 하였다.<sup>41)</sup> 이러한 편곤에 대한 지속적 관심은 英祖代에 편찬된 『續大典』에 무과 시취과목으로 鞭芻가 추가되면서 완벽하게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sup>42)</sup>

正祖代에도 馬上鞭棍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져 군영 내의 習陣訓練을 통일하기 위하여 새롭게 만든 진법서인 『兵學通』中 騎兵의 공격법 및 陣法에서 馬上鞭棍은 騎兵의 핵심무기로 인정받게 된다. 『兵學通』에 소개된 馬上鞭棍에 대한 운용 및 전술상의 특이점은 이후 4장에서 언급할 것이다. 당시 조선기병들의 기본 무장상태를 『萬機要覽』을 통해 살펴보면 馬上鞭棍이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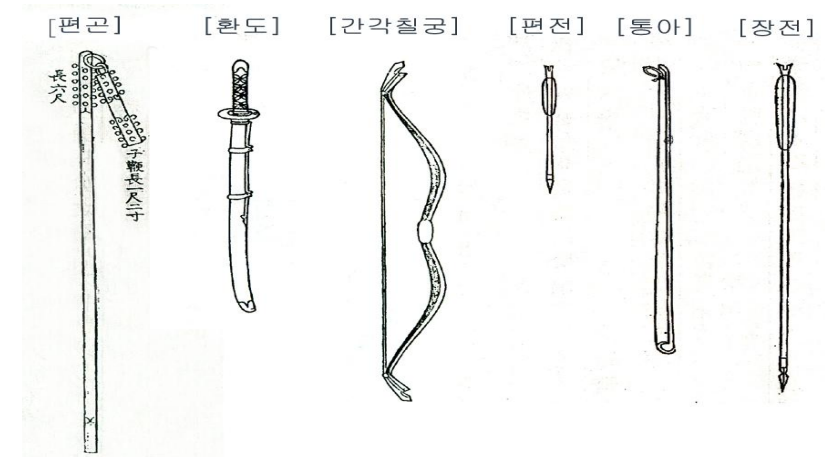
“관에서 급여한 군용 장비품은 금군 매명에 대하여 戰笠 1점·筒筒 1점·長箭 20보·片箭 15본·環刀 1점·馬鞭 1점·桶兒 1점·要鉤金 1점·校子弓 1점·甲冑 1점·鞭棍이 1점인데 훼손되는 대로 매철 첫 달에 교환해 준다.”<sup>43)</sup>

41) 『英祖實錄』卷108, 英祖 43年 5月 己卯.

42) 『續大典』兵典, 試取, 鞭芻: 여기서 말하는 鞭芻는 종종 騎射의 시험 방법의 하나인 騎芻와 혼란되어 이해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鞭芻는 말을 타고 달리며 鐵鞭을 휘두르는 무예라는 것을 『續大典』을 통해 알 수 있다.

43) 『萬機要覽』軍政篇, 龍虎營, 內三廳戎器點考, 龍虎營의 경우는 기병이 중심이 된 禁軍으로 국왕 친위군적 성격이 강하다. 이들의 무장상태를 확인해 보면 당시 기병의 무장상태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기록된 군용 장비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戰笠: 군용 모자의 일종, 筒筒: 활집과 화살집, 長箭: 화살의 일종, 片箭: 화살의 일종, 環刀: 근접 방어용 무기, 馬鞭: 말채찍, 桶兒: 片箭 발사용 보조기구, 要鉤金: 기병용 갈고리, 校子弓: 활의 일종, 甲冑: 일옷 일습, 鞭棍: 기병용 쇠도리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戰笠과 甲冑는 몸을 방어하는 장비이고, 筒筒, 長箭, 片箭, 桶兒, 校子弓은 모두 활 관련 무기일습이며, 環刀, 鞭棍은 기병용 단병무기에 해당한다. 이 중 환도의 경우는 호신 혹은 근접용 방어무기이며 鞭棍은 근접용 공격무기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要鉤金의 경우는 현재 유물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실체가 규명되지는 않지만,

위 사료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공격무기로 사용되는 것은 校子弓과 還刀 그리고 鞭棍이 대표적인데, 校子弓의 경우는 원거리에서 長箭이나 片箭을 쏘아 적을 공격하는 무기이며 단병접전 무기로는 還刀와 鞭棍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還刀보다 鞭棍이 그 길이 면에서 월등하게 긴 사실을 비춰 볼 때, 馬上鞭棍은 당시 말 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당시 기병의 핵심 주력무기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sup>44)</sup>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선후기 병서인 『戎垣必備』에 실린 관련 도판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戎垣必備』에 실린 무기류 도판<sup>45)</sup>

기병이 말 위에서 사용하는 갈고리 도구로 추측된다. 특히 『萬機要覽』軍政篇2, 龍虎營軍器條를 보면 筒兒, 要鉤金, 馬鞭 등을 각각 118개씩 동일하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통아나 마편과 같은 보조기구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武藝諸譜翻譯續集』의 夾刀棍條의 실린 鉤槍을 보면 갈고리 형태의 창을 구창이라고 하였고, 사용법은 협도곤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要鉤金이 구창의 변형된 형태일 수도 있다.

44) 보통 무예에 있어서 그 무기의 길이는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다. 還刀의 경우는 보통 대략 60~80cm 내외의 길이인 반면 마상편곤의 길이는 자루의 길이만 약 130cm이고 자편은 약 35cm이므로 전장 165cm의 긴무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병의 경우는 돌격작전시 還刀보다는 鞭棍을 휘두르며 달려가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이렇듯 조선후기 騎兵들의 핵심무예로 인정된 馬上鞭棍은 壬辰倭亂의 과정 속에서 쉽지는 않은 전술상의 변화를 거듭하며 短兵接戰 위주의 전법으로 변화된 朝鮮 戰術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馬上鞭棍이 騎兵武藝로 정착하는 과정에는 북방세력에 대한 견제를 위한 빠른 騎兵의 돌파력이 조선후기에도 여전히 필요했음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예가 될 것이다.

### 3. 馬上鞭棍의 자세와 訓練方法

조선후기 騎兵의 필수무기로 정착된 馬上鞭棍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자료는 正祖 14년에 완성된 『武藝圖譜通志』이다. 『武藝圖譜通志』는 그동안 많은 연구 성과물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만들어진 무예서 중 가장 많이 알려진 무예서이다. 이 책은 壬亂 과정에서 韓嶠에 의해 만들어진 『武藝諸譜』의 六技와 思悼世子の 대리청정 시절에 만들어진 『武藝新譜』의 十八技에 마상무예 여섯 가지가 추가되어 전체 二十四技로 완성된 조선 군사무예의 결정판이다.<sup>46)</sup> 정조의 경우는 이 책을 편찬함에 있어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았는데, 그 첫째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정통성 확립을 위한 추증사업

45) 『戎垣必備』에 실린 무기류 도판 중 왼쪽부터 鞭棍, 還刀, 弓(여기에는 間角漆弓), 片箭, 筒兒, 長箭 순으로 재배열하였다. 여기에 빠진 戰笠과 甲冑 및 馬鞭은 쉽게 이해가 될 것이며, 要鉤金의 경우는 무기라기보다는 기병이 사용하는 일종의 도구(갈고리)로 추측된다. 그리고 筒筒은 활과 화살집을 말하며, 이러한 무기를 몸에 패용하는 방식은 <그림 2>와 같이 주로 허리에 패용하였으며 鞭棍의 경우 평시에는 말안장에 끼워 휴대하였다.

46) 새롭게 추가된 마상무예 6技는 騎槍, 馬上雙劍, 馬上月刀, 馬上鞭棍, 擊毬, 馬上才인데, 이 중 擊毬와 馬上才의 경우는 실질적인 武藝가 아니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격구나 마상재의 경우도 비록 실제 무예자세는 아니지만 무예를 익히기 위한 좋은 기예이며, 특히 마상재의 경우는 일반적인 마상무예보다도 훨씬 어려운 기예였기에 그 무예적 속성을 들어 마상무예 六技라고 부르는 것도 타당하리라 본다.

의 일환으로 『武藝新譜』의 十八技를 그대로 수록하였고,<sup>47)</sup> 둘째는 당시 騎兵들이 활용할 마상무예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과 각 군영의 표준무예체계 확립을 위해 이 책을 편찬하게 된다.<sup>48)</sup> 특히 마상무예 六技가 더 추가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당시 기병이 익혀야 했던 마상무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武藝圖譜通志』에 실린 鞭棍은 크게 地上에서 익히는 (步)鞭棍과 馬上에서 익히는 馬上鞭棍 등 두 가지가 함께 실려 있다. 그런데 (步)鞭棍의 경우는 일반적인 투로의 형태가 아니라 棍棒과 鞭棍이 맞부딪혀 交戰하는 형태로 실려 있으며, 馬上鞭棍은 말 위에서 일정한 투로를 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武藝圖譜通志』(步)鞭棍과 馬上鞭棍 및 馬上月刀의 勢 비교

	(步)鞭棍	馬上鞭棍	馬上月刀	비 고
1	龍躍在淵勢	霜鶴奮翼勢	新月上天勢	* 馬上鞭棍의 勢 중 '왼편으로 돌아보고 몸을 막고(左顧防身)'와 '오른편을 돌아보고 몸을 막고(右顧防身)'는 勢의 명칭이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 馬上鞭棍과의 비교를 위하여 馬上月刀의 勢를 함께 제시함.
2	霜鶴奮翼勢	靑龍騰躍勢	白虎魚焦勢	
3	扁身中欄勢	春江掃雲勢	秋山御風勢	
4	月夜斬蟬勢	白虎魚焦勢	靑龍騰躍勢	
5	大當勢	秋山御風勢	春江掃雲勢	
6	右內大當	霹靂揮斧勢	秋山御風勢	
7	大當	飛電繞斗勢	靑龍騰躍勢	
8	左內大當		紫電收光勢	
9	左外大當			
10	下接勢			

47) 현재까지 『武藝新譜』(武器新式)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단지 思悼世子(莊祖)의 문집인 『凌虛閣漫稿』와 정조대에 완성된 무예서인 『武藝圖譜通志』 등을 비롯한 몇몇 기록에서 『武藝新譜』에 실린 기예의 종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를 살펴보면 『武藝新譜』에는 정조대에 완성된 『武藝圖譜通志』 중 지상에서 익히는 十八技를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8) 배우성, 「정조시대의 군사정책과 '무예도보통기' 편찬의 배경」, 『진단학보』 91호, 2001 참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步)鞭棍과 馬上鞭棍은 자세명칭에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같은 마상무예의 일종인 馬上月刀와 자세의 일치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마상무예가 갖는 동질성 때문인데, 말안장 위에 걸터앉아 펼치는 무예적 속성으로 인해 공격의 방향이나 무기의 움직임이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sup>49)</sup>

좀 더 구체적으로 馬上鞭棍의 자세를 살펴보면 첫 번째 자세인 霜鶻奮翼勢는 ‘서리매(흰매)가 날개를 펼치듯’ 시작하는 자세로 왼손으로 말의 고삐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편곤을 잡아 높이 쳐 올리는 자세를 말한다. 이 자세는 일종의 시작하는 자세로 자신의 용맹함을 알리듯 편곤을 번쩍 쳐 올리는 자세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자세인 靑龍騰躍勢는 ‘청룡이 뛰어 오르는 자세’로 고삐를 놓고 두 손으로 편곤을 잡아 이마를 지나도록 높이 쳐드는 자세(兩手高舉過額)를 말한다. 이 자세는 공격하기 직전의 자세로 상대의 위치에 따라 전후좌우를 모두 공격할 수 있는 자세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자세인 春江掃雲勢는 ‘봄철 강물에 뜬 구름을 휩쓸고 지나가는 자세’를 말하며 자신의 왼쪽으로 鞭棍을 크게 휘둘러 방어하는 자세(左顧一揮防身)를 말한다. 이 자세는 馬上月刀의 사용법과도 유사하며 편곤을 말 왼쪽 뒤쪽으로 비스듬히 내린 후 아래에서 위로 걸쳐 올리듯 두 손으로 쳐 올리는 자세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자세는 白虎魚然勢로 ‘흰 호랑이가 기세등등한 모습’을 말하며, 두 번째 자세인 靑龍騰躍勢와 거의 유사한 움직임(兩手高舉過額)이라 보면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자세는 秋山御風勢로 ‘가을 산이 바람을 막아내는 듯’한 자세로 세 번째 자세인 春江掃雲勢와 한 짝이 되는 자세를 말한다. 다시 말해

49) 武藝에서 가장 기본은 步法, 즉 걸음걸이에 있다. 다시 말해 각각의 무예의 특징은 그 무기의 특징 이전에 사람이 움직이는 步法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馬上武藝의 경우는 말 위에 앉아서 펼치는 것이기에 인류가 말 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때부터의 움직임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일종의 化石化된 무예의 특징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고구려의 마상무예나 이후 후대에 전해진 조선의 마상무예나 무기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움직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春江掃雲勢가 자신의 왼편 아래로 편곤을 내렸다가 들어 올리며 방어했다면 秋山御風勢는 자신의 오른편 아래로 편곤을 내렸다가 들어 올리며 방어하는 자세(右顧一揮防身)로 볼 수 있다. 여섯 번째 자세는 靑龍揮斧勢로 ‘벼락이 쳐서 그 빛이 도끼에 빛나게 하는 자세’로 편곤을 위로 치켜들었다가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며 왼편 앞쪽을 내려치는 자세(向左一擊)를 말한다.

마지막 자세는 飛電繞斗勢로 ‘날으는 번개가 말(斗)을 둘러싸듯’ 움직이는 자세로, 앞의 자세인 靑龍揮斧勢와 한 짝이 되는 자세를 말한다. 다시 말해 靑龍揮斧勢는 왼편 앞쪽을 내려치는 자세인 반면에 飛電繞斗勢는 똑같은 상황에서 오른편 앞쪽을 내려치는 자세(向右一擊)를 말한다.

그런데 『武藝圖譜通志』에 실린 일곱 가지 勢와 두 가지 움직임은 포함하여 전체 9가지 세부자세로 구성된 마상편곤의 세는 『武藝圖譜通志』가 완성되기 이전에 이미 기병들이 수련했던 것으로 추측된다.<sup>50)</sup> 이는 『續大典』兵典의 試取 鞭芻 條를 살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말을 달려 나간 후에 오른손으로 鞭棍을 잡고 뒤를 향해서 들고, 또 두 손으로 앞을 향해서 들며, 이어서 좌우를 향해서 각각 한 번씩 휘두른다. 한 번씩 친 후에는 갑자기 좌우로 한번 휘두른다. ○ 馬路를 벗어나 옆길로 달리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치기를 마치고 원위치에 되돌아오지 못한 경우에는 騎芻의 경우와 같이 점수를 주지 아니한다. ○ 표적인 6개의 허수아비는 각각 28步씩 서로 떨어져 있고 좌우의 거리는 馬路로부터 3步 떨어져 있다.”<sup>51)</sup>

위의 사료를 『武藝圖譜通志』의 실제 자세와 비교해 본다면, 먼저 ‘말을

50) 나영일, 「'무예도보통지'의 무예」, 『진단학보』 91호, 2001 참조.

51) 『續大典』兵典, 試取, 鞭芻 條. “新增 ○ 出馬後以右手執 向後舉 又以兩手向前舉 因向左右各一揮 每一擊 後輒左右一揮 ○ 橫走者不及漏水者同騎芻 ○ 六芻相距各二十八步左右相距自馬路三步.”

달려 나간 후에 오른손으로 鞭棍을 잡고 뒤를 향해서 드는' 자세는 霜鶻奮翼勢이며, 두 번째로 '두 손으로 앞을 향해 드는 것'은 靑龍騰躍勢(兩手高舉過額)와 白虎魚然勢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좌우를 향해서 각각 한 번씩 휘두른다'의 경우는 왼쪽은 春江掃雲勢(左顧一揮防身)이며, 오른쪽은 秋山御風勢(右顧一揮防身)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한번씩 치는'은 霹靂揮斧勢(向左一擊)와 飛電繞斗勢(向右一擊)이며, 마지막 '갑자기 좌우로 한번 휘두른다'는 세 명칭에서는 빠진 左·右顧防身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쉽도록 구분해 보면 <표 3>과 같다.

특히 시험방법 중 일종의 규칙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당시 마상편곤의 훈련방법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馬上鞭棍을 훈련할 때에는 말고삐를 완전히 놓고 훈련하므로 말이 옆으로 달려 나가기도 하는데,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강한 몸 扶助<sup>52)</sup>를 사용했을 것이다. 특히 左右 芻人의

<표 3> 『武藝圖譜通志』 馬上鞭棍 자세와 『續大典』 시취과목인 鞭芻자세 비교

	『續大典』 鞭芻	『武藝圖譜通志』 馬上鞭棍
1	말을 달려 나간 후에 오른손으로 鐵鞭을 잡고 뒤를 향해서 드는 것	霜鶻奮翼勢
2	두 손으로 앞을 향해 드는 것	靑龍騰躍勢, 白虎魚然勢 (兩手高舉過額)
3	좌우를 향해서 각각 한번씩 휘두른다	春江掃雲勢, 秋山御風勢 (左右顧一揮防身)
4	한 번씩 치는	霹靂揮斧勢, 飛電繞斗勢 (向左右一擊)
5	갑자기 좌우로 한번 휘두른다	左·右顧防身

52) 보통 乘馬法에서 扶助라고 하면 말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삐를 이용한 扶助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마상무예의 경우는 고삐를 완전히 놓고 무기를 사용하기에 고삐부조는 원래부터 사용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마상무예에서는 일반적인 부조방식(고삐, 채찍)이 아닌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여 좌우로 방향을 바꾸는 신체부조 혹은 몸부조가 필수적이다.

간격이 3步로 약 3m 60cm 정도 떨어져 있으며, 馬上鞭棍 중 鞭의 길이가 '鞭長六尺五寸'으로 약 1m 30cm이므로 상체를 좌우로 크게 비틀면서 마상편곤을 훈련했을 것이다. 또한 해당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 안에 말을 몰아 통과해야 했기에 말의 걸음 중 가장 빠른 驅步 혹은 襲步 중심의 마상무예 훈련을 했을 것이다.<sup>53)</sup>

이러한 馬上鞭棍의 훈련과 관련하여 비교할 수 있는 것이 騎射의 훈련법일 것이다. 騎射의 경우 또한 말고삐를 놓고 좌우의 芻人을 쏘는 방식으로 시험을 보았기에 馬上鞭棍과 유사한 훈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騎射의 경우는 遠射武器이므로 鞭棍보다는 조금 더 떨어진 거리에서 시험을 보았다.<sup>54)</sup> 騎射의 훈련법은 조선후기 평양감영에서 발간한 『射法秘傳攻瑕』<sup>55)</sup>에 馬射法과 관련하여 그 훈련법이 담겨 있기에 이를 분석해 본다면 馬上鞭棍의 훈련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射法秘傳攻瑕』 騎射訓練의 순서<sup>56)</sup>를 發馬에서부터 收馬까지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sup>57)</sup>

- ① 發馬 須隨着馬 力顯開如馬 : 말을 출발시킬 때에는 반드시 말에 착 달라 붙어서 말과 같이 힘을 쓰기 시작한다.
- ② 馳驅之法 宜踞坐 不宜站坐 : 말을 타고 달려 나가는 법은 마땅히 걸터앉아야 하며 발을 뻗쳐 앉으면 안 된다.
- ③ 馳馬 宜以身才業向于前 不宜直挺在上 : 말이 달릴 때에는 마땅히 몸을

53) 소선섭, 『승마와 마필』, 공주대학교출판부, 2003.

54) 『世宗實錄』 권133, 嘉禮儀式, 武科殿試儀.

55) 얼마 전까지만 해도 『射法秘傳攻瑕』는 평양감영에서 군사교육 목적으로 그 저본을 중국에서 들여다 복간한 단행본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육군사관학교 군사학과 김기훈 교수에 의해 판권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뤄져 중국의 병서인 『武經七書彙解』의 말권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무과시험의 중요성을 이유로 조선에서도 단순히 군사훈련용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활용한 조선의 사법교범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종화, 「사법비전공하」, 국립민속박물관, 2008, 222~225쪽 참조.

56) 『射法秘傳攻瑕』 馬射法.

57) 최형국, 전계서, 2006, 54~55쪽 참조.

앞으로 숙여야지 몸을 곧추 세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

- ④ 馬已馳圓方 可取箭從容 : 말이 이미 달려서 둥글게 빙빙 돌기 시작하면 화살을 뽑아 조용히 활에 걸어야 한다.
- ⑤ 馬之扯手不宜離早恐馬 : 말을 타고 활을 쏠 때에 말고삐를 일찍 놓는 것은 옳지 못하다.
- ⑥ 射近前手須低於後手 : 근거리에서 활을 쏠 때에는 (쏘는 순간) 앞손이 뒷손보다 낮아야 한다.
- ⑦ 扯手宜短不宜長 : 말고삐는 마땅히 짧아야지 길어서는 안 된다.
- ⑧ 必以雙手近鬚 用力分而收之可 : 반드시 두 손을 말갈기 가까이 하고 두 손에 힘을 고르게 주어 세워야 한다.

위의 내용을 馬上鞭棍과 대입해서 훈련법을 살펴본다면, 먼저 馬上鞭棍을 한손으로 뽑아 들고 몸을 안장에 밀착시켜 말을 출발시킨 후, 말이 일정한 속도로 달리기 시작하면 몸을 앞으로 숙여 마상편곤을 사용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騎射의 경우는 양손을 모두 사용하여 활을 쏘야 하므로 고삐를 완전히 배제하고 부조를 사용해야 하지만, 馬上鞭棍의 경우는 한 손을 사용하여 무기를 다룰 수 있기에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무기가 근접전시에 필수 무기로 인정받았던 것이다.

#### 4. 馬上鞭棍을 통해 본 馬上武藝의 戰術的 特性

조선시대 騎兵 전술을 크게 구분할 때에는 前期와 後期로 구분해서 살펴 봐야 할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壬辰倭亂이라는 전대미문의 큰 전쟁을 거치면서 군사체제는 물론이고 사회, 정치, 문화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전기의 기본전술을 『陣法』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군을 맞이했을 때 중군에서 북을 한번 치면, 각 군의 遊軍이 먼저 사방으로 나아가 상대편 적군을 정탐한 다음, 나팔로 자기 군에 보고하며, 그 군은 나팔로 중군에 보고한다. 중군에서 나팔을 불고 적색 휘를 올렸다가 내리면, 전충이 적군을 맞아 방어태세를 취하며, 흑색 휘를 앞으로 指하고 북이 울리면, 후충이 먼저 나가 적을 맞아 싸우며, 청색 휘와 백색 휘를 앞으로 指하고 북이 울리면, 좌군과 우군이 측면에서 협공하여 후충이 구원한다.”<sup>58)</sup>

위의 사료에 의하면 적을 만났을 경우 척후병을 통해 먼저 정탐을 한 후 중군의 지휘에 따라 기본 전술이 펼쳐지는데, 먼저 적색 휘의 움직임에 따라 보병인 槍隊와 長劍隊가 방어태세를 취하고, 흑색 휘의 움직임에 따라 騎槍隊가 적을 맞아 싸우며, 마지막으로 청색과 백색 휘의 움직임에 따라 騎射隊와 火燭隊 및 弓手隊가 좌우에서 공격을 돕는 방식이다.<sup>59)</sup> 또한 전투시 적군이 패하여 달아나면, 북과 나팔이 울리면서 기병이 가장 먼저 추격하고, 이후 보병은 대열을 벌여 騎兵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에서 조선전기의 기병전술에서 사용되는 핵심 무기가 騎槍과 騎射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선전기의 무과시험과목에서도 살펴 볼 수 있는데, 말 위에서 시험 보는 것은 騎射, 騎槍, 擊毬 세 과목이었다. 이 중 擊毬의 경우는 실제 무예훈련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속성이 馬上武藝를 위한 기초적인 기예였으므로 무과시험과목으로 채택된 것이었다.<sup>60)</sup> 다시 말해 조선전기의 기병전술은 騎槍이 돌격작전을 감행하고, 騎射가 원거리에서 쫓아가며 좌우 측면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였다.

이에 반해 조선후기 騎兵의 기본 전술에는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馬上

58) 『陣法』 癸丑陣設, 應敵篇.

59) 조선전기의 군사신호체제에서 騎射隊는 청색 기를, 騎槍隊는 검은 기를, 火燭 및 弓手隊는 백색 기를, 步兵의 槍 및 長劍隊는 붉은 기를 잡는다 하였다. 『陣法』 癸丑陣設.

60) 최형국, 「조선시대 騎射 시험방식의 변화와 그 실제」, 『中央史論』 24호, 韓國中央史學會, 2006 참조.

鞭棍이 핵심무예로 등장하게 된다. 이는 조선후기 正祖代에 『武藝圖譜通志』와 한 짝이 되어 편찬된 『兵學通』에 가장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兵學通』은 조선후기 새롭게 만들어진 중앙 군영의 진법 훈련 통일성을 갖추고 이를 통해 각 군영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진법 훈련서였다.<sup>61)</sup> 『兵學通』에 실린 진법을 가장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武藝圖譜通志』에 실린 개인 기예를 얼마나 잘 연마하느냐에 따라 진법의 위력이 결정된다. 이러한 내용은 『武藝圖譜通志』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대개 일찍이 논하기를 『兵學通』은 營陣의 綱領이고 『武藝圖譜通志』는 技擊하는 樞紐라고 하였는데, ‘通’이라는 것은 밝다는 것이요 해박하다는 뜻이니 ‘體’와 ‘用’이 서로 상응하고 本末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兵을 논하는 자들이 이 두 ‘通’(『兵學通』, 『武藝圖譜通志』)을 버리고 무엇을 쓰겠습니까? 이를 의술에 비유하면, 運氣를 미루어 증험하고 經脈을 진찰하는 것은 陣法에 해당되고, 草木과 金石은 무기에 해당되고, 약재를 삶고 굵고 조제하고 가는 것은 擊刺에 해당합니다.”<sup>62)</sup>

위의 내용을 馬上鞭棍에 대입하면, 『兵學通』에 나타나는 기병전술 중 마상편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병종의 위력은 곧 『武藝圖譜通志』의 馬上鞭棍 내용을 연마한 정도에 따라 그 공격력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兵學通』에 수록된 다양한 진법들 중 馬兵이 펼치는 진법을 살펴본다면 조선후기 마상편곤의 전술적 운용가치 및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兵學通』의 경우에는 단순히 글로써 진법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1권에는 場操, 別陣號令, 分練, 夜操, 城操, 水操 등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진

61) 현재 『兵學通』에 대한 연구는 노영구에 의해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兵學通’에 나타난 기병 전술, 『정조대의 예술과 과학』, 문헌과 해석사, 2000을 중심으로 기병전술에 대한 기본 연구가 이뤄졌다.

62) 『武藝圖譜通志』 卷首, 兵技總敘.

법에 대해 설명하고 2권에는 이에 해당하는 陣圖를 하나씩 그려 넣어 각 군사들의 움직임의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이 陣法들 중 場操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군사훈련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평시에는 한강 근처의 노량진을 비롯한 너른 모래사장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펼쳤던 것이다.

『兵學通』의 진법들 중 馬兵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진법은 좌우마병각방진, 좌우마병합방진, 이마병추격마병, 이마병추격보군, 이보군추격마병, 마병봉둔진, 마병학익진, 마병삼초방영도, 마병봉둔진도, 마병학익진도, 기사봉둔진도, 기사학익진도 등이다. 이렇게 『兵學通』에서 馬兵의 진형이 독립적으로 다뤄진 것은 당시 기병을 중시했던 상황을 반영한 일종의 증표로 볼 수 있다.<sup>63)</sup>

특히 馬上鞭棍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龍虎營의 작전전개 부분을 살펴보면 보다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龍虎營은 영조31년에 궁궐의 숙위를 담당하던 禁軍廳을 개칭한 것으로 원래 內禁衛, 兼司僕, 羽林衛 등을 묶어 內三廳으로 부르던 것을 변경한 禁軍이다. 특히 이들 중 兼司僕의 경우 임금이 타는 御馬의 조련을 비롯하여 말과 관련된 특수한 禁軍으로 마상무예가 출중한 자들로 구성되었다. 물론 나머지 禁軍들도 기본적으로 武科試驗을 통과하여 배치되었기에 馬上武藝는 기본적으로 익혀야만 했다. 그러하기에 龍虎營은 騎兵의 전술훈련과 관련된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부대이기도 하다.

“龍虎營은 작전을 펼칠 때 적이 100步 밖에 있으면 각각의 병사들이 上馬(말에 올라타)하고 신호포 소리가 나면 一, 二羽旗를 세우고, 點鼓 點旗<sup>65)</sup>하면 後層이 나와 前層 앞에 일자로 벌려 선다. 적이 100步 안에 이르

63) 정해은, 『한국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211쪽 참조.

64) 龍虎營 中 羽林衛를 상징하는 깃발을 의미한다.

65)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군사신호에서 ‘點’한다라는 의미는 깃발의 경우는 ‘깃발을 지면에 대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움’을 뜻하고, 북의 경우는 북을 천천히 친다는 의미를 갖는다.

면 명령에 따라 弓矢를 한꺼번에 발사하고, 적이 50步에 이르면 북을 빠르게 치며 天鵝聲을 분다. 이때 (騎兵은) 鞭棍을 뽑아 들고 소리를 지르며 적을 추격한다. 적이 패하여 물러나면 정을 울리고 북이 멈추면 각 병사들은 제자리에 선다. 정소리가 세 번 울리면 즉시 몸을 돌리고 신호포 소리에 따라 해당 番旗를 세우고 안쪽을 향하여 깃발을 點하면 原地로 되돌아온다. 또다시 적이 오는 상황이 되면 신호포를 쏘고 一, 二兼旗<sup>66)</sup>를 세운다. 북을 點하고 깃발을 點하면 前層이 일자로 늘어서고 적이 100步 안으로 들어오면 활을 쏘고 추격하고 물러나기를 앞의 상황과 동일하게 한다. 또다시 적이 오는 상황을 만들어 신호포를 쏘고 一, 二內旗<sup>67)</sup>를 세우고 북을 點하고 깃발을 點하면 中層이 前層 앞으로 나가 일자로 벌려 서고 활을 쏘고 추격하기를 모두 전과 같이 한다.”<sup>68)</sup>

위 사료를 보면 아군의 騎兵은 적이 100步 바깥에 있을 때 말에 올라타 공격준비를 하고, 100步 이내로 적이 올 경우 遠射무기인 弓矢를 일제히 발사하고, 50步 이내로 들어 올 경우 (馬上)鞭棍<sup>69)</sup>을 뽑아 들고 소리를 지르며 돌격하는 전술을 구사하였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때 주목할 것은 騎兵 또한 上馬한 상태에서 활을 쏘고 이후 돌격용 馬上鞭棍을 뽑아 들고

66) 龍虎營 中 兼司僕를 상징하는 깃발을 의미한다.

67) 龍虎營 中 內禁衛를 상징하는 깃발을 의미한다.

68) 『兵學通』 場操, 問花疊退. “龍虎營 作戰賊在百步之外各兵上馬 放砲立一二羽旗點鼓點旗 後層出前層之前一字擺列 賊到百步之內聽今弓矢齊發 賊到五十步播鼓吹天鵝聲 拔鞭棍吶喊 追擊 賊敗鳴金鼓止各兵立 鳴金三下 卽回身放砲立該番旗向內點退回原地 又作賊來狀放砲立一二兼旗點鼓點旗前層一字擺列 賊在百步之內射矢追擊退兵俱如前 又作賊來狀放砲立一二內旗點鼓點旗 中層出前層之前一字擺列射矢追擊俱如前.”

69) 『萬機要覽』 軍政篇2, 龍虎營, 軍器 條를 보면 着筋鞭棍 669자루, 仁老里鞭棍 1,036자루, 鞭棍 22자루 등 鞭棍으로 보이는 무기가 3종류가 등장한다. 현재로서는 관련 사료가 부족하고 유물이 남아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다만 착근편곤의 경우는 가후군 및 금군에게 주며, 인노리편곤은 100자루는 내삼청 수직소에 나머지는 戰陳練習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착근편곤의 경우는 두정이 박혀 살상력이 강화된 마상편곤이며, 인노리편곤은 훈련 때 사용하므로 살상력이 떨어지는 두정이 없는 것이라 추측되어진다. 그리고 鞭棍은 (步)鞭棍일 가능성이 높다. 추가로 명칭상의 혼란이 있는 馬鞭의 경우는 단순한 말채찍이다.

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대로 조선후기 騎兵은 還刀, 弓矢, 鞭棍을 기본 무기로 갖췄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궁시를 발사하고 무기를 바꿔 鞭棍으로 돌격전을 펼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기병이 활용한 弓矢 중 片箭은 통아에 걸어 쏘는 것으로 말을 타고 달리는 과정에서 편전을 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기에 上馬한 상태에서 片箭을 쏘고 이후 鞭棍으로 무기를 교체하여 작전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sup>7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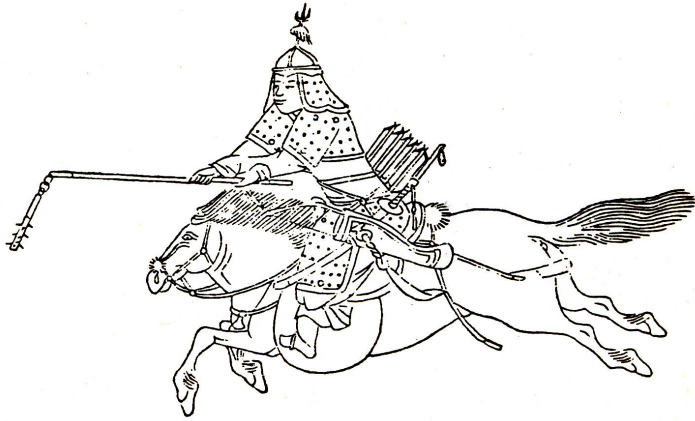
물론 기병의 빠른 돌파력은 기병의 존재이유이기도 하지만, 조선후기 기병의 경우 강력한 화포와 개인 화기의 발달로 기존의 빠른 돌파력보다 더욱 빠른 돌파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sup>71)</sup> 이는 火器의 재장전시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적이 初彈을 발사한 후 재장전에 임하는 시간의 간격 안에 기병이 돌진하여 적진을 유린하는 전술을 주로 사용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보통 기병들이 말의 전속력인 襲步로 달릴 경우 시속 약 65km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조선후기의 기병들은 이때 발생하는 돌파력으로 적진을 무너뜨려야 하였는데, 당시 個人火器의 경우는 정확도가 떨어져 적 기병이 일제돌격을 감행할 경우 아예 다음 사격을 할 여유가 없어 기병의 빠른 돌파력은 馬上鞭棍이라는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무기의 도입으로 편곤을 사용하는 군사들이 더욱 강력한 병종으로 부각되게 되었다.<sup>72)</sup>

이러한 騎兵의 마상편곤 돌격 장면은 『武藝圖譜通志』의 馬上鞭棍 그림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조선후기 기병의 기본 武裝 상태는 자신의 오른쪽 허리춤에 還刀와 弓袋(弓) 그리고 왼쪽 허리춤에 화살통인 시복에 長箭 및 片箭, 통아를 넣어 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70) 과거시험에서도 片箭은 騎射의 형태가 아닌 步射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木箭나 鐵箭과는 다르게 거리로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에 정확히 적중하는 것이 핵심이었기에 기병이 사용한 片箭은 달리는 상태에서 쏘는 것이 아니라 그냥 上馬한 상태에서 쏘았을 가능성이 높다.

71) 노영구, 조선후기 城制 변화와 華城의 城郭史的 의미, 『진단학보』 88, 1999, 298~299쪽.

72) 노영구, 전계서, 2000, 202쪽.



[그림 2] 『武藝圖譜通志』 馬上鞭棍 中 飛電繞斗勢

『武藝圖譜通志』에 실린 여타의 馬上武藝 그림을 확인해 보면 馬上鞭棍을 말안장에 끼워 넣고 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73)</sup>

이렇듯 조선후기 馬上武藝의 戰術的의 特徵은 빠른 돌과력을 감행하기 위해 여타의 무기들보다 타격성과 회수성이 뛰어나며, 휴대하기 간편한 무기인 馬上鞭棍을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기병만의 단독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陣들이 개발된 것을 통해 볼 때 조선전기와 비교하여 보다 빠른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 기병전술이 일반화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전기의 경우 길이가 긴 騎槍이 전면에서 나가 적을 공격하는 전술과 마상무예가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면 조선후기의 경우는 騎槍보다 휴대하기 간편하고 사용에 용이한 鞭棍이 기병들에게 더 효과적인 무기로 인식되어 각 군영에서 널리 보급되고 사용됐던 것이다.

73) 일반적으로 馬上鞭棍을 제외한 나머지 『武藝圖譜通志』의 다른 馬上武藝 그림에서 그 형태의 유사함으로 인해 통아를 두 개 넣고 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馬上鞭棍 그림을 확인해 보면 그것이 통아가 아니라 鞭棍임을 확인할 수 있다.

## 5. 맺 음 말

朝鮮은 壬辰倭亂을 거치면서 사회, 문화, 정치 등 거의 사회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 했다. 이는 군사체제에서도 예외가 아니듯 기존의 기병중심의 五衛陣法을 벗어나 일본군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短兵接戰의 기예가 가미된 砲手, 射手, 殺手라는 三手兵체제가 채택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체제 변화를 통해 7년 전쟁이라는 임진왜란은 넘어갈 수 있었으나, 또다시 북방세력에 대한 방어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丙子胡亂 때에는 청 기병의 빠른 돌과력에 의해 조선의 국왕이 南漢山城에 갇혀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하였고, 마침내는 淸 태종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최악의 상태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이후 李适의 亂 때에는 반란군의 선봉부대가 馬上鞭棍을 휘두르며 도성까지 빠르게 진군하여 仁祖는 또다시 궁궐을 버리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병에 대한 빠른 돌과력이 壬亂을 겪으면서 완성된 보병 중심의 戰法에 다시금 기병전법을 추가 혹은 확장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조선후기 기병의 필수 지참 무기로 인정받았던 馬上鞭棍이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해 馬上鞭棍의 도입과 확대를 통해 조선후기 기병전술의 전체 양상을 읽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무과시험의 일종인 觀武才의 시취과목의 변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조선전기에는 마상무예의 경우 騎射와 騎槍이 주를 이루는 반면 조선후기에는 좀 더 실용적인 형태의 騎芻를 비롯하여 지상에서 수련하는 鞭棍과 雙劍 등 마상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예들이 시취과목들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특히 觀武才는 개인적인 무예시험뿐만 아니라 단체전적인 집단무예시험이 가미되어 기병들의 군사훈련의 일환인 진법훈련의 연장선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鞭棍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續大典』에 실린 馬上鞭棍의 試取 내용을 살펴보면 正祖時代 때 편찬된 『武藝

『圖譜通志』에 실린 馬上鞭棍의 자세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는 馬上鞭棍이 정조시대 때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훈련법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 馬上鞭棍이 정착되어 왔던 것임을 알 수 있는 사료이기도 하다. 특히 『武藝圖譜通志』에 실린 馬上鞭棍의 자세를 실기사적 입장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며 그 자세를 분석하여 어떤 방식으로 기병들이 마상편곤을 훈련했었는가와 더불어 그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적에게 깊숙이 접근하여 근거리에서 빠르게 적을 타격하는 기법이 핵심자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선후기 平壤監營에서 발간한 『射法秘傳攻瑕』의 馬射法과 관련하여 馬上鞭棍의 훈련법을 유추해 볼 때 馬上에서 두 손을 동시에 사용하는 弓矢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후기 간행된 『兵學通』의 진법들 중 기병들로 구성된 龍虎營의 진법과 전투시 騎兵의 전술을 살펴보면 馬上鞭棍이 조선후기 기병들이 핵심 돌격무기로 인정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陣法書에는 보이지 않았던 기병 단독의 진법들이 『兵學通』에 다양하게 수록된 것을 살펴볼 때 기병이 조선후기에도 여전히 전략의 중요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용무기와 무예에 대해 시기적으로 분석해보자면, 조선전기에는 주로 騎槍이 선제 돌격전술에서 핵심무예로 인식되었지만, 조선후기에는 騎槍보다 빠른 회수력과 휴대의 간편성 때문에 馬上鞭棍이 기병돌격 무예의 핵심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것은 조선후기 기병의 기본 무장상태를 봤을 때도 확연히 드러나는데, 당시 기병의 기본 무장에 기본 방어 무기인 還刀와 원거리 공격무기인 弓矢 그리고 돌격무기로 활용된 馬上鞭棍을 갖추도록 명확하게 명문화하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논문은 조선후기 騎兵들이 활용한 馬上鞭棍을 통해 당시 기본적인 기병전술의 특징을 살펴보고 왜 馬上鞭棍이 그 당시 전술의 핵심이 되었는지 살펴본 논문이다. 특히 단순히 문헌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武藝圖譜通志』에 실린 실제 기예들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한 실기

사적인 접근을 추가하였다. 그래서 일정 부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다만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문헌중심 武藝史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실기사적인 고민을 추가하여 논문을 전개하였기에, 나름대로 새로운 시각을 더하여 武藝史를 접근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실기사적인 부분은 오히려 체육학을 비롯한 실기학문에서 다뤄야할 부분이 많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사학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武藝史를 연구한다면 그 또한 충분히 가치 있는 연구라 판단된다. 또한 馬上鞭棍이라는 지극히 작은 무기를 통해 조선후기 기병전술 전체를 살펴본다는 것에 사실상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작은 무기의 도입과 발전을 확인해 보며 전체를 읽어나가는 것 또한 미시사적인 접근의 하나로 생각되며 앞으로 이러한 소재의 내용들이 많이 연구되어 좀 더 다각적인 역사연구가 이뤄졌으면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미시사적이면서도 실기사적인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비교 검토 문헌이 부족하여 논문을 전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자료의 발굴 및 통합연구가 진행되어 이러한 부분을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 2009. 1. 5, 심사수정일 : 2009. 2. 20, 게재확정일 : 2009. 3. 24)

주제어 : 기병(騎兵), 무예(武藝), 마상무예(馬上武藝), 마상편곤(馬上鞭棍), 기병전술(騎兵戰術), 관무재(觀武才), 용호영(龍虎營), 병학통(兵學通),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무예사(武藝史)

&lt;ABSTRACT&gt;

## The Tactical Characteristics of Cavalry Horseback Martial Arts in the Lat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Choi, Hyeong-guk

This study looked into the characteristics of basic cavalry tactics during the later *Joseon* period through *Masangpyeongon* utilized by cavalry during the later *Joseon* period, and how *Masangpyeongon* could be the essence of the then tactics. In particular, the study conducted not only literature research but also an analysis of actual arts delineated in *Muye-dobo-tongji*, and added a actual approach through the analysis and research.

While waging the *Imjin* Japanese Invasion, *Joseon* realized the limitations of cavalry tactics, and organized a hand-to-hand fight approach introduced from *Ming*, China. However, it became necessary to adopt cavalry tactics swift in attacks and defends against an alien nation in the northern area again during the *Ching* period as well as for the *Byeongjahoran*. Such a tendency was also shown in *Gwangmuje*, a sort of the state examination during the *Joseon* period, and the test subjects of *Gwangmuje* during the later *Joseon* period included various arts, involving *Gichu* and *Pyeongon* which were for actual wars, unlike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Given the battle formation of Yonghoyeong composed of cavalry among other battle formations of *Byeong-hak-tong* which was published during the later *Joseon* period, and the tactics of cavalry during the battle, *Masangpyeongon* was approved to be a core assault weapon for cavalry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Furthermore, the battle formation which had been

unique to cavalry, which was not shown in existing battle formation books, were diversely contained in *Byeong-hak-tong*. Therefore, cavalry was supposed to have consistently played a crucial role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When looking at the changes of military arts on horses during the early and late *Joseon* periods, *Gichang* had been mainly perceived as the core military arts in the preemptive strike and assault tactics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but *Masangpyeongon* was approved as the core of the military arts for cavalry assaults because of its rapid collection and easy portability during the later *Joseon* period.

This fact is clearly revealed when considering the basic armament condition of cavalry during the later *Joseon* period. It was because *Masangpyeongon* which had been utilized as *Hwando*, basic defensive weapons for the basic armament of cavalry and bow along with assault weapons which had been used for remote distance attacks, was clearly documented during the period.

Key Words : Cavalry, Horseback Martial Arts, *Masangpyeongon*, *Byeong-hak-tong*, *Muye-dobo-tongji*, Martial Arts, Cavalry Tactics, Martial Arts History, *Gwangmuje*, *Young-ho-yeong*